임실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관내 기업 '콩마을', 베트남 수출계약 체결

임실군이 지역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 교두보를 확보 했다.

임실군은 지역 농식품 가공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10일 관내 농·식품기업인 콩마을(대표 라은정)이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을 진행 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은 전라북도와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이 현지 바이어와 농·식품기업을 연결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 하여 수출 초보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담을 통해 콩마을은 베트남 바이어(Song Phuong Investment Service. Ltd, An Manh Tung 부회장)와 대표 상품인 '낫토키나아제' 샘플 500박스를 우선 계약하고, 3개월 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014년 설립된 콩마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낫토키나아제'를 지난 2016년 출시했다.

지난 5월에는 전북도 시장개척단 업체로 선정되어 중국 시장 진출을 타진 중이다.

또한, 이번 베트남 수출 계약을 통하여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K-Food(케이푸드)에 대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심 민 군수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기회의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며 "이번 베트남 수출계약을 계기로 다양한 우리 지역 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愛 희망동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

1인 가구 단전 · 단수 등 장기 체납 긴급지원제도 등 논의

남원시는 지난 9일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는 여름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인적안정망 구현을 위해 남원 愛 희망동행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복지과장, 한전남원지사 부장, 희망동행팀 등 30명이 참석해 희망복지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등 안내와 희망동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는 지난 9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인적안정망 구현을 위해 남원 愛 희망동행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또한 하절기를 맞아 의료위기, 경제적 고위험군 1인 가구, 단전·단수·단가스·보험료 등 장기 체납 및 의료비 과다 지출가구, 가족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주거환경 및 건강 등 외부접촉이 부족하여 폭염·집중호우 발생 시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취약한 가구 등을 발굴 지원하기로 했다.

남원 愛 희망동행사업은 2017년부터 한전 검침원 15명, 남원우체국 집배원 51명,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69명, 총 135명을 희망동행팀으로 위촉해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강환구 주민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 등 생활고를 비관하는 자살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민간기관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관내 일본뇌염 경보발령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전남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 이상으로 발견됨에 따라 지난 6일 발령된 일본뇌염 경보에 의거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 해 줄 것을 10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어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되고, 성인들은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해 유료로 접종하면 된다.

아울러,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 하고,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와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아기출생 기념' 시책 추진 눈길

주민등록증 발급, 색다른 축하 이벤트로 출산 장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2.02명으로 전국 2위에 올랐던 순창군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기출생 기념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순창군에 따르면 '아기출생 기념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생에 대한 축하의 의미와 지역사회와 출생축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순창군이 특화 사업으로 추진한다. 발행은 11일부터 시행하며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 1장을 지참해 생후 1년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몸무게, 키 혈액형 등 기본정보와 함께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기재되어 부모는 물론 아이들이 자랐을 때도 큰 추억이 될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색다른 이벤트로 부모들이 느끼는 기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단순 지원금 위주의 출산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우선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려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이는 300만원 둘째는 460만원, 셋째는 1천만원, 넷째 이상은 1천 50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원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출산가정 건강관리사지원은 물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제공 및 교육실 실시한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의료비는 별도 지원해 관리한다. 이외에도 공공장소 터미널 수유방 설치, 임산부 배려 주차 표지판설치, 지역신문 출생아 축하 등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런 결과로 순창군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기준 합계출산율이 2.02명으로 해남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마을 만들기 발전 방안 모색

임실군이 민선 7기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특히 민간과 행정의 협력체계를 이뤄 민선 6기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마을 만들기 모델을 만드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10일 군청에서 민간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민선 7기 마을 만들기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심 민 군수와 '사단법인 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최기술 대표를 비롯한 임원 11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각종 마을사업을 추진한 34개 마을들의 결속체이면서,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7기가 시작되고, 행정과 마을 대표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을 만들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선 7기 군정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최기술 대표는 "행정조직의 마을사업 담당부서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사업계획·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일원화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고,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민간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복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선 7기가 출범한 이 달에 서둘러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정책들을 다듬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메아리

전북대 순창분원 평생교육 개강식

순창군은 지난 9일 장류사업소 세미나실에서 강사와 수강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북대학교 순창분원 평생학습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황숙주 군수, 정성균 군의회 의장과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강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강사진 소개와 축사, 과정별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평생학습 아카데미는 2007년부터 전북대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 순창분원 식품생명공학과의 여름방학 빈 강의실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제2회 과정은 7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97명을 대상으로 요가, 하모니카, 중국어 등 3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80%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이 발급된다.

황숙주 군수는 "평생학습 아카데미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유능한 강사진들이 참여하여 군민들에 질 높은 교육을 선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학습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북부사무소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대책 운영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점현)는 여름휴가철 탐방객 급증할 것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세워 운영한다.

올 여름 성수기는 오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계곡 내 안전시설 설치,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 활동 등을 사전 점검하여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곡 내 취사, 야영, 불법 주차 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요 단속사항은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등이다.

강호남 자원보전과장은 "여름 성수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